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2~9/8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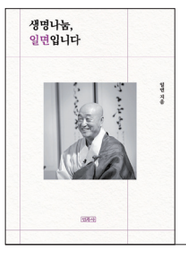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독송본 한문한글역 대방광불화엄경 제1권	수미해주	담앤북스	6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51	여천무비	담앤북스
2	사람이 부처님이다	무비	불광출판사	7	스님의 맛	장보배	모과나무
3	무비스님의 초발심자경문 강설	무비	조계종출판사	8	무량수경	김현준	효림
4	공양간의 셰프들	계호 외	생각의힘	9	무영수 영원의 나무	금강	담마북스
5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보만	불광출판사	10	법구경 마음공부	정운	유노북스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법구경이야기(3)	무념,응진 역	옛길	6	니까야강독2	각묵,대림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2	가시를 거두세요	광우	쌤앤파커스	7	나는 누구인가	라마나 마하리쉬	청하
3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중관학 특강	김성철	오타쿠
4	무아와 일심	한자경	김영사	9	불멸(1)	이각 지음	지혜의눈
5	탁! 깨달음의 대화	법륜	정토출판	10	숨을 쉬세요. 당신은 살아있어요	틱낫한	운주사

"덤으로 받은 삶, 생명나눔으로 회향"



생명나눔, 일면입니다

일면 스님 지음
민족사
1만7500원

일면 스님 팔순 회고록 출간
삶의 궤적과 생명나눔 여정
"살아있음, 누군가의 은혜 덕"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지금은 덤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후 축구로 치면 '연장전'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인 일면 스님의 삶은 간이식 수술 전후로 나뉜다. 수술 전까지는 인생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름 모를 청년의 간 기증으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그 숭고한 정신을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여생은 오롯이 남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다짐했다.

26년 전 얻은 '두 번째 삶'을 생명나눔을 위해 정진해 온 일면 스님이 팔순을 맞아 회고록 〈생명나눔, 일면입니다〉를 펴냈다. 8월 31일 서울 생명나눔실천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스님은 "한 생을 돌아보니 만났던 모든 인연이 부처님이었고 은혜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책은 유년 시절의 출가부터 수행, 종단 소임과 군포교 활동은 물론 지난 20여 년간 이어온 생명나눔 운동까지 80년 삶의 궤적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특히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은 스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은혜'라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회향의 삶을 상세히 기록했다.

젊은 시절 배구 선수를 할 만큼 건강했던 스님에게 시련이 찾아온 것은 1982년. 선진 복지를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준비하던 중 몸의 피로를 느껴 찾은 병원에서 병을 발견하게 됐고, 이후 1999년 간경화로 2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이생의 인연을 정리하려던 때 뇌사자의 장기 기증 덕분에 간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8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면 스님이 신간 〈생명나눔, 일면입니다〉를 소개하고 있다.

수술 직후 간병인 몰래 이불을 뒤집어쓰고 눈물을 흘린 뒤 창밖 풍광을 바라보았던 순간은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 꽃다운 스물두 살에 세상을 떠나며 새 생명을 준 이름 모를 청년을 '선재 영가'라 부르고 그의 몫까지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스님은 부처님이 영겁의 세월 동안 축생으로 화현해 자신의 몸을 보시하는 등 삼악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자비행을 실천한 뜻을 되새기며, 두 번째 삶을 '아픔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바치겠다'고 서원했다.

스님은 2005년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법장 스님이 갑작스레 입적하자 차기 이사장에 추대됐다. 이후 약 20년간 환우 1300여 명을 위한 모금과 치료비 지원, 수술 연계를 이어오며 불교의 자비행인 '하화중생(下化衆生)'을 펼쳐 왔다.

스님은 "현재 장기이식 대기자가 6만여 명에 달하지만 국내 뇌사자 기증 비율은 5% 수준으로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친다"며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이어 "함께해 준 인연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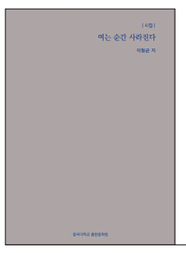
"겉으론 수행자다운 척을 했을지 몰라도 참된 수행자였는지 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인연 따라 왔다, 부처님 은혜로 덤벙덤벙 살다가 인연 따라 간다'는 열반송을 생각하고 있어요. 남은 삶 동안 59점짜리 인생을 60점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겁니다."

"비어 있기에 온 우주와 연결된다"



11차원의 마음풍경

이형근 지음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2만원



여는 순간 사라진다

이형근 시집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1만3000원

이형근 시인의 에세이 · 시집
물리학과 불교 사유 풀어내

'나는 누구인가.' 이 오래된 물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실하다. 이형근 시인은 신작 에세이집 〈11차원의 마음 풍경〉과 시집 〈여는 순간 사라진다〉를 통해 이 질문을 현대 물리학과 불교철학, 시적 언어의 경계에서 다시 던진다. 두 책의 밑바탕에는 '연기(緣起)=공(空)'이라는 하나의 사유가 흐른다.

〈11차원의 마음 풍경〉은 양자역학과 11차원 초끈이론을 불교의 연기와 공 사상에 비춰 새롭게 해석한다. 저자에게 '연기'는 우주와 자연, 인간을 서로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관계하고 변화하는 하나의 유기적 세계로 바라보는 존재론적 원리다.

그가 현대 물리학에 주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가 확고한 실체라고 믿는 세계가 실제로는 관계와 가능성 속에서 드러나며, 관측과 인식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현대 물리학의 연구 결과가 고정된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불교의 공 사상과 사유의 접점을 이루기 때문이다.

에세이의 사유는 시집에서 보다 압축적이고 직관적인 언어로 변주된다. 제목 '여는 순간 사라진다'는 무언가를 규정하고 붙잡는 순간, 그것의 본래 모습을 놓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그의 시에서 '공(空)'은 허무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해 생겨나는 가능성의 자리다. 나를 고정된 실체로 붙잡지 않을 때 타자와 세계를 받아들일 공간이 생기고, 나와 세계의 경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더 넓은 존재의 관계망이 보인다는 것이다.

여수령 기자

어린이 눈높이로 풀어낸 〈아함경〉



유리 거문고를 타는 음악의 신 반차익

한국불교아동문학회 엮음
대양미디어
1만5000원

불교 초기 경전인 〈아함경〉은 석가모니 부처님 입멸 후 제자들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如是我聞)'며 기억을 되살려 정리한 최초의 경전이다. 인간의 삶과 고뇌, 깨달음에 대한 깊은 통찰은 물론,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 연기법(緣起法) 등 불교의 핵심 교리를 담아 불교 공부의 입문이자 완성으로 꼽힌다.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이 담긴 〈아함경〉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풀어낸 동화집이 나왔다. 한국불교아동문학회(회장 권영주, 이하 문학회)가 조계종 문화부의 지원으로 발간한 18권째 동화집 〈유리 거문고를 타는 음악의 신 반차익〉이다.

한국불교아동문학회 18권째 동화집
소속 작가 48명 집필 총 51편 수록

이번 신간은 〈아함경〉 중에서도 긴 경전을 모은 〈장아함경(長阿含經)〉(22권 30경)과 별역 단행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장아함경〉은 기승전결이 뚜렷한 서사 구조와 비유, 상징을 갖추고 있어 한 편의 대서사시나 연극을 연상시킨다. 부처님을 신격화된 존재를 넘어 인간적 고뇌와 자애로움을 지닌 완성된 인격체로 묘사한 점도 특징이다.

이번 책에는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녹아 있다. 욕심을 내려놓고 타인을 배려하면 마음이 밝아진다는 깊은 교리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냈다.

동화집에는 권영주 회장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퀴', '금관을 뚫고 나온 발'을 비롯해 문학회 소속 작가 48명이 집필한 총 51편이 수록됐다. 표제작인 홍재숙 작가의 '유리 거문고를 타는 음악의 신 반차익'은 〈불설장아함경〉 제10권 제2분 '석제환인문경 제10'을 바탕으로 제석이 부처님께 원한의 원인을 물으며 괴로움의 뿌리를 깨닫고 음악의 신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렸다.

김일환 고문의 '하늘을 날던 사람들'은 광음천의 존재들이 지상으로 내려와 탐욕에 빠지면서 신통력과 몸의 빛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다룬다. 탐욕이 내면의 본성을 가리고 소유할수록 집착의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각 단편은 아이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5쪽 안팎으로 구성했다. 여기에 〈전태일 통신〉과 '웹진 문화 다' 등에 작품을 연재한 전솔이 일러스트레이터의 삽화도 더해 이해를 도왔다.

다만 그림보다 텍스트 비중이 높아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에게 적합하다.

문학회는 경쟁과 불안, 정서적 고립이 심화된 오늘날, 이번 동화집이 어린이들에게 마음을 돌보는 지혜를 전하고, 분노를 다스리며 상생하는 삶의 태도를 일깨울 것으로 기대했다.

권영주 회장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회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냈다"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나눔과 배려, 바른 마음의 소중함을 익히고 더 따뜻하고 밝은 마음을 키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982년 설립된 문학회는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바른 심성을 갖추도록 2009년부터 경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동화책을 꾸준히 간행해 왔다.

배희정 기자

제 55차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삼보에 귀의하오며,
제방에서 각자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수행정진과 교화에 매진하고 계신 2천여 동문스님들.
유난히 무덥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이제 서늘해진 가을날 서로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한마음으로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불기2570(2026)년 10월 1일 목요일 오후 1시
장소 운문사 청풍료 주 최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안건 • 의료비 지원에 관한 안
• 동문회 차기 회장 승인 안
• 모교 발전과 화합을 위한 기타 안
문의 054)372-8800(운문사 종무소)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무영 합장